

## 기상청, 미국과 첨단기술협력 강화!

- '제8차 한.미 기상협력회의'에서 기상기술 협력 논의

- 기상청 장동언 차장은 3월 28일(화) 미국기상청(청장 케니스 그레이엄 (Mr. Kenneth Graham))이 개최하는 '제8차 한미 기상협력회의'에 참석했다.
- 이번 협력회의에서 양 기관은 주요업무 계획을 소개하고, △기상위성·레이더 △기후변화 점검 △기상 분야 인공지능 활용 연구 △수치예보 기술 협력 등을 주요 협력 안건으로 논의하였다.
- 특히, 주요 안건 중 기상위성, 인공지능 활용 연구와 수치예보 등에 대해서는 양국 전문가들 간 기술회의를 별도로 진행하여, 상호 차세대 기상위성 개발 현황과 계획, 인공지능 활용 연구에 관한 기술과 미래 방향, 그리고 극지방 수치예보 모델링 기술을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.
- 양 기관은 200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△예보 현업 체계 △기상위성 활용 기술 △기후변화 과학 △수치예보 △전문가 교류 △공공 기상서비스 등 주요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을 해 왔다.
- 미국 기상청장은 “그간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력과 발전을 이룬 데 감사”의 뜻을 전하면서, “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은 허리케인, 태풍 등 위험기상에 대해 상호 예보

정확성을 개선하고 국가의 회복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.” 라고 말했다.

○ 장동언 차장은 “이번 협력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양국 기상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 믿으며,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 앞으로 한-미 간 기상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.” 라고 밝혔다.

□ 기상청은 앞으로도 기상위성, 수치예보 등 첨단분야 선진 기상기술을 보유한 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, 위험기상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받는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□ 붙임 제8차 한 - 미 기상협력회의 사진
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마승완 (042-481-7320)
		담당자	사무관	공종웅 (042-481-7316)

## 제8차 한-미 기상협력회의 사진



| 협력회의 사진 |



| 협력회의 합의서 서명 사진 |